

강진,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로 건강데이터 구축

강진군이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해 보건으로 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다.

조사대상은 통계전문가가 통계적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한 강진군에 거주하는 표본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900명이다. 조사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원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직인이 포함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전용 조끼를 착용한다.

조사 절차는 사전 가구선정 안내서 발송,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순

으로 진행된다. 조사 완료자에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되며, 조사 이후에는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확인 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여부,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포함해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 1건당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한준호 강진군보건소장은 "이번 조사는 군민의 건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선정된 가구에서는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1-430-5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운재 기자



지역사회건강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공감무안, 다(多)함께 문화체험' 운영

무안군은 오는 17일 외국인 군정 모니터링단 등 외국인주민 20명을 대상으로 '공감무안, 다(多)함께 문화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무안군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오동도, 향일암 등을 둘러보며 대표 관광지 및 자연경관을 체험하고, 서로의 문화와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문화체험이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넓히고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안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공동체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18일 시작



목포 시청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차 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시는 지난 1차 지급 기간(4월 27일~5월 8일)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시민 맞춤형 행정 지원을 통해 지급 대상자의 96.6%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남 평균 지급률인 93.6%를

웃도는 수치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시민과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시는 1차 지급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지급에서도 시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전남 함평군이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첫 주 '집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적극 행정에 나선다.

함평군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해당 군민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고,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과 거동 불

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이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해당 군민 22,832명과 1차 지급 미신청자 150명을 포함한 총 22,982명이다.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가구·소득별 특성을 반영해 수립됐으며, 해당 군민

에게는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집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정보 부족과 신체적 제약으로 지원금 신청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문수 기자

신안, '농촌왕진버스' 연계 치매예방사업 추진 호응

신안군은 5월 15일 '농촌왕진버스' 사업과 연계하여 아해읍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양·한방, 구강검진, 검안·돌보기, 치매 조기검진 등 주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 사업으로 압해농협과 함께 기획되었다.

신안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선별검사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검진 결과 인지 저하자로 분류될 경우 협약병원과 연계해 정밀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치매 환자로 등록되면 조호물품 지원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영암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영암군이 최근 영암군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영암군과 영암경찰서가 함께 진행했으며, 지역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과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 14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등 총 33개 시설의 통학버스 41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군은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암군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희자 영암군 가족행복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가고싶은 영암은 수변길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출장소대리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출장소대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영암시

장성군